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해결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방안

School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for Satisfying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formation Needs

이 연 옥(Yeon-Ok Lee)*

< 목 차 >

I. 서론	3. 도서관에 대한 선호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IV. 고등학생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방안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진로 관련 서비스
II.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2. 학습 및 수업 관련 서비스
III. 정보요구에 대한 대처양태	3. 독서치료서비스
1. 관심분야에 대한 태도	4. 문화교육프로그램
2. 정보원에 대한 선호	V. 결론 및 제언

초 록

이 연구는 인문계고등학생의 정보요구와 그에 대한 대처양태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행태에 기반한 학교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인문계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1) 인문계고등학생의 주요 관심과 그에 대한 대처방식, 2) 그러한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특성, 3) 인문계고등학생의 정보요구해결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정보요구, 정보추구, 정보행태, 정보추구행태, 정보서비스, 청소년서비스, 도서관서비스, 학교도서관 서비스, 공공도서관 서비스, 고등학생, 청소년, 인문계고등학교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urvey of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their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n the basis of it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chool library services and programs. To do this, this study collected its data through survey and interviews.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d 1) the types of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everyday concerns and the ways to deal with them, 2)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preferred information sources, 3) the school library services and programs for satisfying their information needs

Key Words: Information Need,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ormation Service, Young Adults Service, School Library Service, Public Library Service, Teenager, Young Adult, High School Student, Academic High School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accesspt@naver.com)

• 접수일: 2007년 2월 20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인간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는 질 높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서비스를 설계하는 도서관사서들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정보행태와 선호하는 바를 이해하고 난 뒤, 이들의 패턴과 특징에 맞춰 서비스와 정보원의 형태를 개발하고 조정한다.¹⁾ 이는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에 보다 부합하는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서비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학교도서관의 경우 정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 힘입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336 개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 또는 리모델링되었으며, 2007년에도 1200개 학교도서관이 설치 또는 리모델링될 예정으로 있는 등 도서관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시설이나 외형은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가고 있으나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맞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데다 도서관에서 이용할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증원과 더불어 콘텐츠 확보, 학교도서관의 프로그램 등 내용적 측면에서의 개발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상황을 반영한 듯 최근 학교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정책자료들이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현장의 사서교사들 또한 학교도서관을 운영해가며 그 모형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관련 연구에서나 도서관현장의 실무과정에서 학교도서관의 주이용자인 학생들의 정보요구와 행태에 기반하여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거나 실행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서구의 학교도서관을 모방한 서비스모형을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보니, 이들 정책과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도서관운영 및 서비스모형들이 현장의 사서교사들이 직접 운영하고 서비스를 실행해나가는 데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대상자인 학생들에게 과연 매력적일 수 있을지,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보요구에는 어느 정도 부합할지 의문이 들게 된다. 바로 도서관의 이용자인 학생들의 정보요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과정은 학교도서관이 이들 계층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과정이 간과되어 도서관서비스방안이 소개되거나 제안된다는 것은 이용자 지향적인 도서관봉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1) Denise E. Agosto & Sandra Hughes-Hassell, "People, Place, and Questions: an Investigation of the Everyday Life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of Urban Young Adul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27(2005), p.141.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의 전제가 되는 학생들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인문계고등학생에 중점을 두고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조사하고 이에 의거하여 도서관서비스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우선,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상황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인문계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문제, 주된 관심사와 흥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정보요구의 유형을 도출해낸다.

둘째,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문제, 관심사와 흥미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적극적인인지, 소극적인지, 방치하는지 등 정보요구에 대한 대처방식을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요구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사한다.

셋째,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특성을 비롯하여, 각 정보원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선호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정보요구와 대처양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서관서비스 방안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학생들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의거한 도서관서비스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먼저,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인문계고등학생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특별한 요구를 밝혀냄으로써 인문계고등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보세계와 정보환경에서 도서관과 사서교사의 개입가능성과 그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이에 더해, 학교도서관의 주이용자인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도서관운영과 서비스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의 정보요구와 대처양태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사서교사뿐 아니라 공공도서관 사서가 청소년의 성장과정 및 일상적 삶에 결합된 도서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고등학생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문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데이터는 인문계고등학교인 D고등학교를 사례로 하여 수집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2007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에 걸쳐, 방학 보충수업에 참석하는 1, 2학년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30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이 중 오류가 있는 설문 5부를 제외하고 총 295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면담조사는 학년, 성, 성적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20명의 학생을 교사로부터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로 1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대상인 D고등학교는 1997년에 개교한 남녀공학 공립고등학교이다. D고등학교의 도서관은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장서수는 7000여권, 장서구입비는 1년에 1000여만 원 정도 된다. 평소 1일 평균 7-80여명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국어 교과담당 교사가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으며, 준사서 자격을 가진 행정직원이 대출반납, 자료등록 등을 비롯한 도서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은 자료대출 중심의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고, 다독상, 다독학급상 시상, 학급별 윤독자료대출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정도다. D고등학교도서관은 2007년 상반기에 교실 세 개 크기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이후는 사서교사를 확보할 계획이며,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이 학교는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설계해야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D고등학교의 주요 이용자인 학생들의 정보요구와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D고등학교 도서관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에 의거하여 도서관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도서관과 학교도서관서비스의 개발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상황을 고려하면, 이 연구의 과정 및 결과는 향후 고등학교의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 개발에도 좋은 안내자료가 될 것이다.

II.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연구자가 청소년의 주요고민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뒤, 이를 종합하여 고등학생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을만 하거나 고등학생에게 주요한 관심사가 될 만한 분야를 11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영역별로 관심정도를 학생들로 하여금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각 영역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관심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순위를 구하였다. 그 결과가 다음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직업 및 진로'(1위)와 '대학 및 학과'(2위)와 같은 진로문제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로에 이어 '수업과 학습'(3위)

에 대한 관심과 '친구관계'(3위)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왔는데 이 두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는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학생들은 '외모나 건강문제'(5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디오, 음악, 영화, TV 등을 비롯한 여가활동'(6위), '각종 사건사고를 비롯한 사회적 이슈'(7위)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외에 '부모 형제관계를 비롯한 가족문제'(8위), '이성친구관계를 비롯한 성문제'(9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관심을 나타낸 반면에, '선생님관계'(10위)나 '음주나 흡연'(11위)분야와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고등학생의 관심분야

관심분야	관심정도(%)					계	평균값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있다	보통이다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1) 진로 및 직업	48.1	37.3	12.5	1.4	0.7	100.0	4.31
	142	110	37	4	2	295	
2) 대학 및 학과	47.1	36.6	13.6	2.0	0.7	100.0	4.27
	139	108	40	6	2	295	
3) 수업 및 학습(시험, 숙제, 성적, 공부방법 등)	32.9	34.9	24.1	6.8	1.4	100.0	3.91
	97	103	71	20	4	295	
4) 친구 관계	25.4	45.8	23.7	4.7	0.3	100.0	3.91
	75	135	70	14	1	295	
5) 건강, 외모	25.4	45.4	23.7	4.7	0.7	100.0	3.90
	75	134	70	14	2	295	
6) TV, 비디오, 영화, 음악, 놀이 등 여가활동	29.2	38.0	24.4	5.8	2.7	100.0	3.85
	86	112	72	17	8	295	
7) 사건사고 정보, 사회문화적 이슈	23.4	38.3	31.2	4.7	2.4	100.0	3.76
	69	113	92	14	7	295	
8) 부모형제 관계(가정환경, 부모 형제와의 관계)	14.9	35.6	37.3	7.1	5.1	100.0	3.48
	44	105	110	21	15	295	
9) 이성친구 및 성문제	14.6	28.1	41.7	12.2	3.4	100.0	3.38
	43	83	123	36	10	295	
10) 선생님 관계	6.1	19.0	44.4	20.7	9.8	100.0	2.91
	18	56	131	61	29	295	
11) 음주, 흡연	4.4	7.1	22.4	33.2	32.9	100.0	2.17
	13	21	66	98	97	295	

이들 11개 관심분야는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6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들 6개 영역, 즉 ①진로(직업, 학과선택, 대학진학 등) ②수업 및 학습(숙제, 성적, 평가, 학습 등) ③관계(친구, 부모형제, 이성친구, 선생님) ④건강(외모, 건강, 음주, 흡연 등) ⑤여가(영화, 음악, TV, 놀이 등) ⑥일반적 정보(사건사고,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20명의 학생들과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주요한 관심과 고민의 구체적이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2〉 고등학생의 정보요구(주요 관심분야 : 6개 영역)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 진로(직업, 학과선택, 대학진학 등)	■ 건강(외모, 건강, 음주, 흡연 등)
■ 수업 및 학습(숙제, 성적, 평가, 학습 등)	■ 여가(영화, 음악, TV, 놀이 등)
■ 관계(친구, 가족, 이성, 선생님)	■ 일반적 정보(사건사고, 사회적 이슈 등)

가. 진로

우선, 학생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진로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호소한 내용은 바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이제 곧 3학년이 되는데도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과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1학년 때 학교 진로교육시간에 소개해 준 진로 및 직업관련 사이트도 들어가 봤으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진로를 정하지 못해 걱정이 많이 된다. 내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2학년 C양).

아직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 지 깊게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된다.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도 잘 안 된다(1학년 K군).

면담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기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의 능력, 적성, 특기, 소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어떤 직업이 맞는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장래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없어 열의가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 삶과 인생, 공부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회의나 의문을 가지거나 방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구체적인 직업전망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의 어떤 학과에 진학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특정 학과 졸업이후 취업전망이나 직업적 비전은 어떠한지 등 대학 및 학과 선택과 관련한 고민과 관심이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B군의 진술이다.

호텔경영인이 되고 싶다. 호텔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 대학마다 취업전망이나 비전이 어떠한지 궁금하다(1학년 B군).

또한 대학 및 학과정보 뿐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성적은 얼마나 좋아야 하는지, 각 학교별 입시평가항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준비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정보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선택하게 된 것은 법조계 진출한 친지들의 영향이 크다. 내 성적으로 서울대, 연대를 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 서울대, 연대 법대에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2학년 J양).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다. 이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모르겠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과마다 커트라인을 알고 싶다. 무슨 과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지도 알고 싶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봤으나 봐도 잘 모르겠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더라. 정보가 많지 않다. 다들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2학년 L군).

이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 대학과 입시와 관련된 정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수업 및 학습

‘수업 및 학습’과 관련한 학생들의 관심과 고민은 우선, 시험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이 가장 많이 호소되었다. 상위권, 하위권 할 것 없이 학생들은 성적에 고민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고 주로 성적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데 따른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를테면, 중학교에 비교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다. 성적이 떨어지면 장래에 뭐가 될까 걱정이다 등 성적이 떨어져 지나치게 자신감을 잃거나 불안해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매우 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성적이 상위권이다. 그런데 1-2등 등수에 아주 예민하다. 시험 때가 되면 너무 경쟁적이고 예민해진다. 시험이 걱정이 되어 잠을 못자기도 한다(2학년 CH양).

위 학생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심한 경우는 시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이른바 ‘시험불안’²⁾에 시달리는 학생도 있었다. 이를테면, 시

2)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시험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극복하고 실력을 발휘하곤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나 특히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을 때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이러한 시험불안(test anxiety)을 초래한다. 시험불안이 심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시험지가 백지로 보이기도하며 두통이나 복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수반하기

힘날짜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불안해져 주의집중을 못하고 눈으로 책을 보고 있어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된다거나, 시험 때가 다가오면 머리가 아파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성적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좌절과 실패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생활에서 오는 과도한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는 촉발요인이 되기도 한다.³⁾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 최근 데이터뉴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초중고생 2,356명 중 46.4%가 자살에 대하여 생각해봤다고 응답하였고,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 '성적비관(19.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⁴⁾ 해마다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한 청소년에 대한 언론보도를 우리는 심심찮게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업스트레스 다음으로 학생들이 많이 거론한 문제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나 구체적인 성적향상방법 등 학업전략과 관련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거나, 노력은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왜 그런지 등 자신의 학습방법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인 공부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진술이다.

성적이 안 오르는 것이 제일 갑갑하다. 누가 날 가둬놓고 공부 좀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공부계획을 세워도 내가 이걸 알맞게 세운 것인지 불확실하다(2학년 J양).

언어가 약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대학 진학한 공부 잘하는 형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한다. 구체적으로 답을 제시해주지 않는다(2학년 K군).

거의 모든 과목이 다 약하지만 수학은 포기했다. 학교 선생님들 수업하는 방식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선생님이 설명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학원안다니면 이해가 안 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혼자 진도 나간다. 애들이 다 자도 혼자 하신다. 한 4명 정도 수업에 집중한다. 수학은 2-3명 듣는다. 영어는 10명 정도, 어떤 선생님은 2명 데리고도 수업한다. 선생님들도 포기하는 분위기다. 1-30등까지 하는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의 수준이나 요구별로 수업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1학년 L군).

도 한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심리학(교육과학사, 2004), p.312.]

3) 전영주, 이숙현,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2000), pp.221-246.

4) 데이터뉴스, <<http://www.datanews.co.kr>>, 2006. 5. 12.

이처럼 학생들은 공부방법을 비롯한 효율적 학습방법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부방법에 대한 진단과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였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학습내용이나 어려운 학습내용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고 싶어 하였다.

다. 관계

청소년의 경우 인간관계의 영향을 성인보다 심하게 받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의 발생과 소멸에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된다.⁵⁾ 이 조사에서도 고등학생들은 친구를 비롯하여 이성친구, 가족(부모형제 등), 선생님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그들의 인간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고민과 문제의 구체적 내용은 면담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1) 친구

친구문제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업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⁶⁾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또래친구들이 모든 것이 될”⁷⁾ 만큼 그들에게는 친구란 절대적 존재이기에 고등학생들의 친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학생들의 ‘친구’에 대한 관심은 ‘수업 및 학습’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⁸⁾

친구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고민은 면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우선, 또래친구들끼리 소외를 당한다거나 무시당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친구의 행동이 위협적이며 심리적 물리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친구간의 말다툼으로 인한 고민, 이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느끼는 갈등도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구의 외모, 성격, 성적 등을 서로 비교하여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거나 친구와 사귀는 것이 미숙하여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반면에, 친구가 너무 많아서 공부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고민하거나 친구와 놀기를 좋아해서 공부시간이 부족하여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시험기간에 친구에게 필기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등 친구들끼리 경쟁관계에 처하게 되는 상황도 학생들은 고민스럽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심리학(교육과학사, 2004), p.397.

6) 상계서, p.397.

7) 메리 파이퍼,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김영혜, 김영재 역(문학동네, 1994), p.91.

8) 앞서 설문조사결과에서 ‘친구문제’에 대한 관심정도와 ‘수업 학습’에 대한 관심정도는 동일한 것으로 나왔다. <표 1>을 보면, 각각에 대한 관심정도가 3.91로 그 평균값이 동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1호)

내신성적이 중요하기에 수업시간에 필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비싼 과외를 새벽까지 받으면 서 학교수업시간에는 졸고 나에게 노트를 보여 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노트가 있으면서도 없는척 했다. 또 나와 내신이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새로운 과외를 시작했는지 어떤 책을 보는 지가 자꾸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2학년 B양).

이처럼 현 입시체제의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한 경쟁관계로 내몰게 하여 친구들 간에도 지나치게 의식하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한다. “부모 말은 안들어도 친구말은 듣는 때가 청소년 시기”⁹⁾인데 친구마저도 경쟁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 교육체제를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이와 같은 심리적 갈등과 고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2) 가족

가족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부모와 대화가 결핍되거나 부모의 무관심과 소홀로 인해 거리감이 발생한다든가, 부모자녀간 세대차이나 가치관 차이,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가 다른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여 마음이 상하는 데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와 과잉보호를 하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살펴보자.

부모님이 나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 지나친 관심과 개입이 부담스럽다. 이러 저러 해야 한다고 강요하시고 나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오빠는 잘 맞추는데 나는 맞추는 게 싫어서 밖으로 샌다. 그래서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많은 편이다(1학년 J양).

아빠와 사이가 안 좋다. 부모님말만 옳다고 하시는 편이라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나는 그냥 입을 다물어버린다. 아빠 말이 법이고 남자가 우월하다는 가부장적 사상을 가진 분이다. 잘못하면 아빠한테 별서고, 혼나고, 맞고 이런 경험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고 1때 아빠와 부딪치는 게 많아 많이 싸웠다. 아빠한테 따지고 달려들고 했다. 그때가 사춘기였는지 참 많이 반항했는데, 지금은 잠복기인 것 같다(2학년 K양).

의사소통의 어려움,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개입 외에도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민과 문제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면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의 불화나 이혼, 아버지의 폭력, 술주정으로 인한 문제, 부모에 반항한다든가, 지나치게 의존하여 독립심이 없다 든가하는 데서 오는 고민, 가정의 물리적 구조적 환경의 어려움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과 부담감 등 가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¹⁰⁾

9) 김형모, “상담편지로 본 십대들의 고민,” 한국청소년연구, 창간호(1990, 여름), p.140.

한편, 형제간에도 서로간의 비교로 인해 무시하거나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등의 불화가 생기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동생이 나를 무시해서 속상하다,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가 동생편만 든다, 형하고 너무 많이 싸운다 등의 토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또한 형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 형제가 없어서 외롭거나 형제가 없어 자기만 안다는 등의 진술들이 있었다.

(3) 이성친구

설문조사과정에서는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성교제가 주요관심사인 것이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안을 느끼거나 자신의 성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이성관계로 인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된다.¹¹⁾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고등학생들의 반응은 남자친구가 없어 고민이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성친구에 관심이 많이 간다 등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 많았다.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는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개입으로 인해 공부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민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남자친구 때문에 공부를 안한다, 여자친구가 자주 전화를 해서 공부에 방해가 될 때가 많다, 남자친구를 너무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진다 등이 그러한 반응들이다.

또한 이성친구를 짝사랑하거나 삼각관계로 인해 갈등하거나 질투하는 데서 오는 고민도 있었고, 이성친구와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있거나 싸우게 되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헤어지거나 실연당하고 난 뒤의 부적응문제로 인한 고민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해답을 알고 싶어 하였다. 또 올바른 이성교제방법과 태도를 몰라서 고민스러워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이성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데이트를 신청해야 할지를 모른다, 자신의 데이트신청이 거절당하거나 상대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성친구와의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으로 인한 고민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살펴 보도록 하자.

남자친구들의 경우 성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몇 번 해봤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내가 아는 애 중에는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친한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친구 8명이 5만원씩 모으

10)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 II(청소년대화의 광장, 1995), pp.108-112, pp.132-142.

11)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게서, p.393.

고, 이는 형한테 보호자 해달라고 하여 낙태시킨 경우도 있다(1학년 Y양).

주변의 친구들보면 여자친구와 술도 먹고, 여관에도 가고 그런다. 그리고 나서 또 헤어지기도 하고(1학년 H군).

이처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이성친구와의 교제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선생님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설문결과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면담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은 주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데서 학생들의 상처와 고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성적이 상위권인 애들한테만 잘한다, 성적에 따라 차별하고 발표도 공부 잘하거나 마음에 드는 애만 시킨다는 등의 내용들이 그것이다. 또 선생님의 체벌로 인한 불만도 제기되었으며, 선생님이 권위적이고 무섭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선생님과 사고방식의 차이, 세대차이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정서는 전반적으로 반발과 반항심이 많아 보였으며 선생님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진술이다.

선생님도 무식하고 학생들도 무식하다. 웃기고 어이가 없다. 사제관계가 아니고 길가다 시비 붙은 행인 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선생님들은 학생들 욕하고 학생들도 선생님 욕하고 그렇다(2학년 L군).

담임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시고 칭찬은 아끼신다. 체벌도 잘하신다. 나보다도 잘못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유독 나만 야단치시는 것 같다. 마음이 편하기보다는 선생님이 겁난다(2학년 P양).

이외에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발생하는 고민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성격이 소심해서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든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다.

라. 건강

(1) 외모

외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의 한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나 신체외모에 대해 집착하거나 과장되게 생각하며, 공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 특성으로 나타난다.¹²⁾ D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이와 같은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체형이나 얼굴 등의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였다. 몸이 너무 뚱뚱해서 고민이다, 덩치가 너무 커서 고민이다, 키가 작아서 고민이다, 털런트나 모틸처럼 날씬해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주근깨 때문에 고민이다 등 다양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해서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이로 인해 상처를 입고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부족하여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친구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너무 크다, 외모 때문에 이성친구를 가지지 못한다, 신체조건에 열등감을 가진다, 키가 작아서 놀림을 당한다 등의 표현들이 그와 같다.

한편, 외모에 대한 대처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보였다. 살을 빼려고 저녁을 굶는다, 청국장다이어트를 해봤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쓰러졌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더 쪘다, 방학만 지나만 친구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데 다음 방학 때 나도 성형수술 할 계획이다 등 불만스런 외모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특히나 여학생들 사이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면담과정에서 많은 여학생들이 다이어트 경험과 실패담을 이야기하였다. 입시와 성적에 지배하는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성적의 상하를 막론하고 외모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은 청소년기 소녀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상심리학자인 메리 파이퍼는 청소년기 소녀들의 경우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느끼며,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평가에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하였다.¹³⁾ D고등학교의 여학생들도 이와 같은 청소년기 소녀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2) 음주, 흡연, 기타 건강

음주나 흡연, 기타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설문조사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면담과정에서 특히 음주흡연문제는 고등학생 문화에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학생들이 음주와 흡연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다음은 고등학생의 음주흡연문화에 대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다.

여고생 흡연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자화장실에 가면 담배냄새가 심하게 난다. 화장실 주변의 반들이 선생님들께 하소연을 하면 화장실에 환풍기를 달아주는 선에서 그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진 않는다. 술 문제도 심각하다. 씨클같은 경우, 단합대회와 같은 모임에서 의례히 다 마시는 분위기다. 안마시고 싶어도 분위기가 안마실 수 없다. 친구들끼리도 주말에 영화보고 술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다.

12) 한상철,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학지사, 2004), pp.24-25.

13) 메리 파이퍼, 전게서, pp.73.

술은 마트가서 직접 사기도 하고 우리들끼리 청소년들이 출입이 가능한 곳을 알기에 그런 술집에 주로 간다. 이런 정보는 친구들끼리 다 공유가 된다(2학년 J양).

D고등학교 학생들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음주흡연문화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2005년 발표한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남자 고교생 중 16%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20% 정도가 하루에 반 갑 이상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무려 60%에 달하며, 월 3회 이상 술을 마시는 청소년도 26%나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¹⁴⁾ 고교생 여섯 명 중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네 명 중 한 명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음주와 흡연은 쉽게 중독되고 치명적일 수 있으며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¹⁵⁾ 성적과 진학문제 등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음주와 흡연으로 해소하려는 분위기가 학생들의 음주율과 흡연율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외 고등학생들은 수면문제나 기타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잠이 많아 걱정이다, 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계속 앉아 있어 살이 찌고 허리가 아파서 고민이다, 손발이 차서 고민이다 등 자신의 신체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나. 여가

여가에 대한 관심은 주로 TV, 영화, 음악, 오락 관련 정보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여가활동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나타난다. 면담에서 학생들의 여가는 주로 친구만나기, 영화보기, TV보기, 인터넷서핑하기, 음악듣기, 오락하기, 미니홈피나 메신저하기 등으로 집약되고 있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며 즐긴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많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활동 실태와 특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게임이나 인터넷이용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고, TV시청과 같은 수동적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⁶⁾ 학생들의 여가생활 자체가 폭넓은 경험을 쌓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주로 가정 내에서의 단조로운 생활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여가문화인 것이다. D고등학교 학생들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입시로 인해 시간의 여유도 없는 데다 특별히 할 데가 없거나, 특별히 할 것이 없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14) 통계청, 청소년통계, 2005. 참고.

15) 정재승, "청소년 음주·흡연의 해악," 한겨레, 2005. 5. 11.

16) 최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고등학생의 생활시간 중,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2시간 35분, 토요일 4시간 47분, 일요일 6시간 43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여가시간에는 보통 미디어이용, 교제활동, 기타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중에서도 TV나 인터넷 등의 미디어사용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생활시간," 2004 생활시간조사, 2005.).

바. 일반정보(사건사고나 사회적 이슈)

마지막으로 각종 사건 사고나 사회적 이슈 등의 일반적 정보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학생들은 납치, 성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뉴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논술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입시경향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과정에서 대입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신문을 본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다.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 사회적 이슈에 관심가질 시간이 없다. 그러나 논술준비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에 크게 나는 사건, 예를 들어 황우석 사건의 경우 일어났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만 알고 더 이상 자세히는 모른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될 것 같다(2학년 K군).

논술에 나온다고 하니깐 일반사건사고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이 간다. 신문을 보는데, 깊숙이 보는 것은 몇 개 안된다. 시간이 없기에 표면적인 내용만 알고, 깊이는 못 들어간다(1학년 CH양).

II. 정보요구에 대한 대처양태

1. 관심분야에 대한 태도

앞서, 연구자는 고등학생들의 주요한 관심과 고민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와 같은 고민과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고민이나 문제상황, 관심이나 호기심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질문해보았다. 그 결과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152명의 학생이 이와 같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51.5%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또한 ‘정보를 찾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지만 안 찾자면 포기하는’ 학생들도 41.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어도 관련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6.8%에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편이나, 관련 정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찾아지지 않을 때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관심분야에 대한 태도

구분	빈도	퍼센트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52	51.5
정보를 찾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지만 안 찾자면 포기한다	123	41.7
알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20	6.8
합계	295	100.0

2. 정보원에 대한 선호

관심분야나 고민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조사한 데 이어,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찾으려고 할 때, 혹은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서 찾는지, 누구에게서 구하는지를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표 4 참고), 학생들은 '인터넷'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90.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찾을 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친구'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6.4%의 학생들이 친구에게 물어본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적 경험'에 의거해서 해결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47.5%나 되었다. 그리고 책이나 잡지를 찾아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36.9%에 달하고 있었으며, 부모에게 의존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2.9%인 것으로 드러난다. 반면, TV나 라디오(27.1%), 교사(19.3%), 신문(15.9%), 학교(7.8%), 도서관(5.8%)에 대한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은 인터넷 > 친구 > 개인적 경험 > 책, 잡지 > 부모 > TV, 라디오 > 교사 > 신문 > 학교 > 도서관 > 기타(학원, 친척, 형제 등) 순으로 정보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표 4〉 정보원에 대한 선호(복수응답)

구분	빈도	퍼센트
친구	196	66.4
교사	57	19.3
학교	23	7.8
개인적 경험	140	47.5
부모	97	32.9
도서, 잡지	109	36.9
신문	47	15.9
도서관	17	5.8
TV, 라디오	80	27.1
인터넷	266	90.2
기타	8	2.7

학생들이 각각의 정보원을 이용하는 양태와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면담과정에서 보다 자세

히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한 인터넷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관심사항과 고민을 해결하는, 필요한 해답을 찾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다음의 한 학생의 이야기를 보자.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본다.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해주기에 즉석해서 알 수 있어 좋다.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으면서 가장 정보가 많은 곳이 인터넷인 것 같다(1학년 O군).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진로직업정보, 대학입시정보, 숙제관련정보, 공부방법, 성적 올리는 방법, 다이어트 정보, 연예인정보, TV, 영화, 음악, 오락 등에 관한 정보 등 거의 모든 관심사항을 망라적으로 찾고 있었다. 쉽고 편리하다, 정보량이 많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은 학생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손쉬운 정보원으로 선호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달려가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정보원으로 거론된 '친구'의 경우, 주로 학원정보, 이성문제, 친구 관련 문제나 영화, 음악, 오락 등의 여가활동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학생들은 또래 집단인 친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친구는 학생들의 제반 고민과 관련한 상담자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늘 함께 생활하고, 편하다라는 친구정보원의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친구에게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또래친구가 그들의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적절한 해답을 제공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의 관심과 고민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선호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로부터도 필요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과정에서 학생들은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보나 진로직업관련 정보를 부모로부터 제공받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교사나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교사로부터는 내신성적, 시험, 진학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도서나 잡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온 반면에, 도서관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¹⁷⁾ 그 외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이들 대중매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직접 구한다기보다는 이들 대중매체가 공급하는 정보 중에서 특히, 진로진학정보의 경우 부모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급받고 있었다.

한편, 이들 정보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표 5>를 보면, 정보를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로 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체 응답

17) 도서관에 대한 선호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자의 52.5%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학생들은 특히나 입시와 대학진학 등의 진로문제에서 관련정보의 부족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진학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다. 선생님도 물어봐야 가르쳐준다. 선생님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주신다. 진학관련 인터넷사이트를 가르쳐주기도 하나 선생님이 나의 진학진로와 관련한 구체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더라(2학년 P양).

이처럼 진학진로를 비롯한 입시정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실제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대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입시 및 진로와 관련한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주지 못하고 있어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와 관련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다. 학교선택, 학과선택과 관련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직업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확실한 입시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등과 같이 교사나 학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다.

〈표 5〉 정보를 구할 때 어려운 점

구분	빈도	퍼센트
내가 필요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가 부족	155	52.5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름	66	22.4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72	24.4
기타	2	0.7
합계	295	100.0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자할 때 ‘관련정보의 부족’ 뿐 아니라 ‘찾은 정보가 신뢰할 만하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2명(24.4%)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담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정보나 학과정보를 들을 수 있는 데라고는 인터넷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데서 구한 정보들을 믿어야 할지 판단이 안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는 네이버에서 개인체험담 위주로 많이 살펴 보는데, 사람들이 체험위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한 정보도 많고 100% 믿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1학년 Y양).

친구들끼리 이야기 많이 안다. 요즘 뭐가 좋다더라, 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이야기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 그러나 친구마다 아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 사실 이들 정보를 완전히 믿고 따라 하기에는 뭔가 짝퉁하다(2학년 K양).

이처럼 학생들은 친구정보원이나 인터넷정보원의 경우 편하고, 접근하기 용이하여 많이 이용하나 그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정보의 신뢰성판단문제에 이어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도 22.4%나 되었다. 전체 295명의 응답자 중 66명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3. 도서관에 대한 선호

앞서 정보원에 대한 선호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도서관은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보요구를 해결하는 주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거나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도서관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도서관은 단지 '책을 빌릴 수 있는 곳',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주로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과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을까? 그 결과를 보면(표 6 참고), 도서관을 월 1회 미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72명(24.4%)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하였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67명(22.7%)의 학생은 주 1-2회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비교적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주 1-2회 이상의 도서관방문은 94명으로 전체응답자의 31.9%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전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도 65명(22%)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을 그리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말하는 '학교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이

〈표 6〉 고등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도

구분	빈도	퍼센트
매일	9	3.1
주 3-4회	18	6.1
주 1-2회	67	22.7
월 1-2회	64	21.7
월 1회 미만	72	24.4
전혀 이용 안함	65	22.0
합계	295	100.0

유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서 도서관에 자주 안간다였다. 또한 도서관에 갈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도서관이 멀어서 가기가 귀찮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또한 책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책이 없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대출중이거나 찾는 책이 없다 등 자료에 대한 불만도 학생들의 도서관으로 오는 발걸음을 묶어두고 있었다. 분위기가 안락하지 못하고 책에 대한 안내도 없으며 도서관관련 이벤트나 프로그램도 없다는 등 도서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도서관이용률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 하고 있었다.

Ⅲ. 고등학생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방안

지금까지 연구자는 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와 그에 대한 대처양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정보요구를 조사한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서관서비스 방안을 내어오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문계고등학생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앞서 정보요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문계고등학생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진로, 학습 및 수업, 관계, 건강, 여가, 일반 정보(사회적 이슈 및 사건사고 등) 분야에서 그들의 주요한 관심과 고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주목하고, 이들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서비스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진로 관련 서비스

앞서 정보요구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가장 높은 관심사가 진로문제였으나,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 이들 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갈증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안내하는 일일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굳히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등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안내서비스는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개발하도록 안내하기 보다는 수능성적만 가지고 대학을 정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의 개발이 학교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일회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진로안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교사들의 업무까지 많다보니,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상담과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책이나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있으나 그들이 접근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과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선택하기보다는 수능성적이 발표되어 입시원서를 작성할 때, 심지어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¹⁸⁾

이와 같은 현재의 학교상황과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주목한다면,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진로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 직업에 종사하는 인물과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연결하는 등 진로관련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내서비스도 도서관의 주요한 정보서비스로 정착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진로문제와 관련한 정보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특성, 적성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 및 수업 관련 서비스

학습 및 수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학교도서관의 전통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지원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과제, 수행평가 등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도서관의 지원은 우선적으로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습 및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직접 제기한 정보요구를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도 개발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습 및 수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정보요구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나 구체적인 성적향상방법 등 학업전략에 관한 것이 많았다.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입각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관련한 정보자료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간관리, 시험전략, 자기주도 학습전략, 노트필기전략, 기억전략, 글쓰기전략 등 학습방법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는 것도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개선컨설팅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관련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서교사와 교과담당교사와의 협력이 기반하여 개발 운용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도서관이 학습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학생들의 고민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18) 김봉환, "청소년 진로상담 정책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제18권, 제1호(2000), pp.146-169.

한편, 정보활용교육 또한 학생들의 수업활동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의 전통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특히 D고등학교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른다'거나 '입수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고려한다면, 학교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서비스라 할 수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수업과제해결을 비롯한 문제해결과정에서 정보활용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D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과제해결과 관련한 행태를 보면, 인터넷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한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를 실감할 수 있다.

근현대사 수업에서 5.16쿠데타에 대해서 팀과제가 나왔다. 주로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 찾고, 사진자료 부치고, 동영상 부치고 해서 과제를 제출했다. 책은 교과서만 보았다. 책을 찾지는 않는다. 거의 인터넷이다. 책의 중요성을 잘 모르겠다. 애들도 인터넷에서 다 찾는 편이다(2학년 J군).

학교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인터넷정보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편증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제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식별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독서치료서비스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학교도서관이 고등학생들이 당면한 다양한 고민과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독서치료서비스에 주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독서치료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와 고민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서관서비스라는 점에서 도서관에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고등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서비스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의 영역에서 개발될 수 있다. 앞서 고등학생의 정보요구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보면, 도서관에서는 우선 학습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호소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친구간의 경쟁의식의 심화, 시험과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는 입시와 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과도한 입시중심

19) 앞서 설문조사결과에서 22.4%의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으며, 24.4%의 학생들이 '입수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표 5> 참고.

의 우리사회에서는 입시부담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때 학습장애나 학교내 부적응증을 보이고, 심하면 등교거부나 교외에서 비행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 과열입시가 청소년들의 문제에 미치는 병폐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²⁰⁾ 또한 심각한 경우는 입시중심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노력과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이 과도하여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결행하는 학생들도 우리사회에서 적잖이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가 입시와 학업, 시험으로 인한 과중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학업뿐만 아니라 부모형제와의 갈등을 비롯한 가정문제, 교우관계에서도 학생들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기에는 인간관계의 영향을 성인보다 심하게 받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의 발생과 소멸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²¹⁾는 보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의 조사과정에서도, 이성친구, 부모형제, 교사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등학생들의 주요 고민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친구관계는 외부의 다양한 스트레스의 완충적 역할을 하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되는 반면 커다란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외톨이로 지내거나, 인기가 없어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지 못하여 오히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엮어지는 친구관계가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²²⁾ 또한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얻거나,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대우가 공정하여 교사에 대해 존경심을 느끼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뿐 아니라 자존감도 증진될 수 있는 반면에, 교사와의 관계가 불편할 경우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반항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일탈행동과 함께 정신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한다.²³⁾ 부모형제를 비롯한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청소년의 고민을 비롯한 정신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고민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관계를 비롯하여 이성친구, 부모형제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고민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나 고민에 대해서도 학교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나왔던 학생들의 음주와 흡연, 성문제를 비롯하여 이외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폭력, 자살, 가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20) 이길홍, “정신의학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2호(1990), p.90.

21) 한국청소년개발원, 전계서, p.397.

22) 구자경,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2004), p.220.

23) 상계논문, p.221.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적 상황이나 학생들의 주요고민에 대처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장치나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주로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두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이와 같은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고려한다면, 학교도서관은 위에서 제시한 청소년들의 당면문제나 고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 된다. 특히, 독서치료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고민에 대처하기 위한 도서관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학교도서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나 고민에 주목하여 청소년이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학생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고민유형에 맞게 관련 책을 추천하거나 안내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 고민유형에 따라 자료를 함께 읽고 문제를 극복하도록 독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사서교사와 학교상담자간의 연계 및 협력활동을 통해서 학교 독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독서치료서비스는 그 대상을 학생들 뿐 아니라 학생들과의 주요관계를 형성하고 갈등과 고민을 주고받는 상대라 할 수 있는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4. 문화교육프로그램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연구한 문경숙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미국청소년에 비해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건전한 여가시간의 부족이라 설명하고 있다.²⁵⁾ 앞서 학생들의 여가에 대한 요구와 관심에 대한 조사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여가는 입시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다, 그나마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라도 하더라도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로 고등학생들은 친구만나기(영화보기, 술마시기, 오락

24)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치료프로그램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김정근 “독서치료에서 ‘진정성’의 요소” 도서관, 제60권, 제2호(2005. 12), pp.163-186.; 한국도서관협회,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대학(2006. 9 - 2007. 1).; 황금숙,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2호(2003. 12), pp.41-57.; 정재희, 청소년의 상처난 마음을 돌보기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 개발 방안 연구: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3.; 박인선, 학급경영에 적용한 독서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25) 문경숙,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7권, 제5호(2006), pp.143-157.

하기 등), TV보기, 인터넷하기(미니홈피, 메신저, 서핑, 오락), 음악듣기 등에 그치고 있었다. 적절하고 올바른 여가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발달과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특별히 할 것도, 갈 데도 없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해 문화적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서적이며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 학교 내의 주요한 문화적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가지는 기본적인 역할이자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서관에서 직접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책과 청소년의 연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북토크, 독서프로그램, 독서클럽이나 서클 등을 설계하는 것은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독서와 리터러시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²⁶⁾ 뿐만 아니라, 작가초청강연회, 토론회, 전시회, 시낭송대회, 영화상영 등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한정된 여가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적 정서적 체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서 학생들의 정보요구의 하나로 조사된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은 현재 대학입시 논술을 위한 대비적 차원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는데, 학교도서관에서는 사회적 이슈나 쟁점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안내하거나, 나아가 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에게 관련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인식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도서관활동은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연구자는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와 그에 대한 대처양태를 살펴본 뒤, 인문계고등학생의 정보요구 해결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 Christine A Jenkins, "The History of Youth Services Librarianship: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Libraries & Culture*, Vol.35, No.1(Winter, 2000), p.118.

고등학생들은 직업, 학과선택, 대학진학을 비롯한 진로정보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제, 성적, 평가, 학습 등의 수업 및 학습과 관련해서도 정보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친구관계를 비롯하여 부모형제, 이성친구, 선생님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외모, 음주, 흡연을 비롯한 건강문제나 각종 영화, 음악, TV, 놀이 등의 여가활동과 사건사고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고등학생의 정보요구가 발생하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대처양태는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정보부족문제였으며, 그들이 입수한 정보가 과연 믿을만한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생들은 그들이 당면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과 친구에 대한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체계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또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요구를 해결해주는 정보원으로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책을 빌릴 수 있는 곳', '책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주로 가는 곳' 등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생들의 정보요구와 그에 대한 대처양태에서 드러난 특징과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정보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도서관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진로, 학습 및 수업, 관계, 건강, 여가, 일반정보 분야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관심과 고민에 주목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도서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로 진로관련서비스, 학습 및 수업관련서비스, 독서치료서비스,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서비스가 도서관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보자원을 비롯한 주요기관과의 협력활동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본법'²⁷⁾의 시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관련 사회적 자원과 인프라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들 기관과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은 청소년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들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고등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고민과 관심, 흥미를 비롯한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적 노력을 이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27)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교육적,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제안한 이들 서비스가 학교도서관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학교도서관의 물적조건(시설, 공간, 장서)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전문사서교사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사서교사가 확보된 뒤에라야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학교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도서관 현장에 사서교사가 신속히 확보되어 연구자가 제안한 서비스가 사서교사에 의해 실천되어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권현진. “중학생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구자경.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2004), pp.217-239.
- 김봉환. “청소년 진로상담 정책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제18권, 제1호(2000). pp.146-169.
- 김정근. “독서치료에서 ‘진정성’의 요소.” 도서관, 제60권, 제2호(2005. 12), pp.163-186.
- 김형모. “상담편지로 본 십대들의 고민.” 한국청소년연구, 창간호(1990 여름).
- 메리 파이퍼.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김영혜, 김영재 역, 문학동네, 1994.
- 문경숙.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7권, 제5호(2006), pp.143-157.
- 박은자.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5. 6), pp.5-33.
- 서미옥.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도서 탐색.” 아동학회지, 제25권, 제6호(2004), pp.89-103.
- 이제환.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 한울, 2006.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소의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pp.273-295.
- 이제환, 장덕현, 이연옥. “재일한인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4), pp.221-248.
- 장덕현.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빈곤 양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pp.219-236.

- 전영주, 이숙현.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2000), pp.221-246.
- 한국도서관협회.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형 독서대학*(2006. 9 - 2007. 1).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2004.
- 한상철.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학지사, 2004.
- 한윤옥.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방안모색(국립중앙도서관열린정책세미나자료집)*. 2006. 4. 26. pp.33-46.
- 황금숙.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 제14권, 제2호(2003. 12), pp.41-57.
- Agosto, Denise E. & Hughes-Hassell, Sandra. “People, Place, and Questions: an Investigation of the Everyday Life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of Urban Young Adul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27(2005). pp.141-163.
- Bates, J. A.. “Use of Narrative Interviewing in Everyday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26, pp.15-28.
- Bishop, Kay & Salveggi, Anthony. “Responding to Developmental Stages in Reference Service to Children.” *Public Libraries*, Vol.40, No.6(2001), pp.354-358.
- Caywood, Carolyn. “What’s a teen?.” *School Library Journal*(February 1993).
- Jenkins, Christine A.. “The History of Youth Services Librarianship: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Libraries & Culture*, Vol.35, No.1(Winter 2000), pp103-140.
- Jone, Patrick. *New Directions for Library Service to Young Adults*, ALA, 2002.
- Katz, Bill & Fraley, Ruth. *Referenc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The Haworth Press, 1983.
- Latrobe, Kathy & Havener, W. M..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High School Honors Students.” *Journal of Youth Services in Libraries*, Vol.10, No.2(1997), pp.188-200.
- McKenzie, Pamela. “A Model of Information Practices in Accounts of Everyday-life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9, No.1(2003), pp.19-40.
- Shenton, Andrew. “The Nature of Information Needs and Strategies for their Investigation in Youngster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26(2004), pp.296-310.
- Walter, Virginia. “Public Library Service to Children and Teens: a Research Agenda.” *Library Trends*, Vol.51, No.4(2003), pp.571-589.